

성경적 기업가 정신: 창조경제와 그 시사점 (Biblical Entrepreneurship and Its Implication to the Creative Economy)

이운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은 기독교학문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 11. 16) 발표용으로 초고이며 완성된 논문이 아님을 밝히며, 본고를 인용할 시에 필자의 허락을 요합니다.

I. 문제제기

우리나라도 이젠 저성장 기조에 들어섰다. 경제의 조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만 해도 6~7% 이었던 것이 최근엔 3~4%대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엔 실질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실직상태이며 세수 부족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여러 가지의 요인 중 기업가정신 쇠퇴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기업가정신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kiet, 2011 참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조직인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창업활동을 대리변수로 간주)이 활발한 나라가 고성장을 누리고 일자리 창출도 높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GEM을 통하여 각국의 기업가정신과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의 약 1/3 ~ 1/4은 기업가정신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Audretsch and Thurik (2010)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관리형 경제(managed economy)에서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리형 경제에선 '규모의 경제'와 대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기업가적 경제에선 기업가정신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하여 성장되었으나,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 (장인성, 2013). 우리나라의 현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개인적 특성 및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종교는 종종 개인의 사고방식 및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과 종교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취약하다. 경제, 경영학과 신학 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¹⁾.

일찍이 (1904~1905년)에 베버는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발흥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 후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베버가설을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

1) Dana, L. P에 의하여 편집된 Entrepreneurship and Religion, 2010은 기념비적인 연구총서이고, 기업가정신과 다양한 종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업가정신과 종교(특히 기독교)와의 연구는 필자가 시초가 아닌가 여겨짐.

진국 (OECD)의 유럽 기독교 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유국의 제외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고소득국가도 대부분 기독교 문화권이다. 그러나 베버는 청교도 윤리가 어떻게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는 가에 대해선 엄밀한 경제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업가정신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독교적 영향이 기업가정신과 국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하여 시초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2절에선 우선 기업가정신의 기본적인 소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런 속성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선 기독교적인 사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성경속의 기업가정신

1. 기업가정신의 주요 특징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효용극대, 이윤극대화 등 극대화(maximization) 및 효율성(efficiency)에 의하여서만 결정될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의 중요한 하나가 기업가 요소(entrepreneurial element)이다. 기업가 요소 중 핵심적인 것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불확실과 모험 감수(risk taking) 및 재도전

나이트 (Knight, 1921) 기업가는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이라 하고 있다. 혁신적인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위험을 회피하려 하는데,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이 중요하다. 첫 번째의 도전으로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마침내 성공한다. 따라서 모험감수도 중요하지만 실패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2) 혁신 (innovation): 변화

슘페터 (Schumpeter)는 기업가를 혁신의 주체(innovator)로 인식하여, 기업가는 기존의 전통방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였다. 이런 일련의 행위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라 하였다. 기업가는 신제품 개발, 새로운 방식의 도입, 신시장 개척, 새로운 공급자 확보, 새로운 원료확보, 새로운 조직 등을 통해서 달성된다.

(3) 기민성: 기회포착 능력

커즈너 (Kirzner)는 기업가의 이윤은 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여 기업가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기업이윤이 어디에서, 무엇에서 어떻게 창출되는가 등에 대한 시장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기민성’(alertness)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남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시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인 기민성을 기업가정신의 요체로 보고 있다. 기업가의 요소를 시장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기민성(alertness)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4) 미래지향적

기업가정신은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통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창업을 시작할 때는 자동차 차고지 같은데서 하지만 세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꿈과 비전으로 역경을 헤쳐 나간다.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과 꿈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추진력이 된다²⁾.

2. 성경에 나타난 기업가정신의 주요한 속성

2.1 불확실성 하에 위험감수(risk taking under uncertainty)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속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미래 이윤을 얻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한다는 점이다. 이런 요소들이 성경의 기본 정신과도 잘 어울린다. 성경도 미래에는 불확실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미하여 (믿음의 속성)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창 12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험이다. 노년에 전혀 낯 설은 땅으로(불확실성) 이주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주한 것이다. 히11:8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행동의 기업가정신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미지의 세계로 나가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그리하여 성경은 누누이 두려워말라 (사 41:10, 수 1: 6~8), 담대하라 (수1:6, 민 13:20, 신 31:6~7),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한다. 히 11: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지만 믿고 따를 때 확실히 실현된다는 내재적인 확신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에 상응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가 생긴다. 기업가들도 시장의 결과에 대해선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위험이 따르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감행할 때(risk taking)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적인 요소인 불확실성과 위험감수의 기본 사상이 성경에 흐르는 기본 정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두렵다고 위험을 기피하거나 안주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마25장에 등장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각각 100%의 수익률을 올렸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원금만 보전하였다. 이를 두고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한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은 이유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다고 한다 (마25: 25). 장사하면 본전도 다 잃을 위험이 있어서 안전하게 땅에 묻었다가 돌려주었는데(원금 보전)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심히 책망한다.

믿음은 그 속성상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히 11:1).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증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신에 의지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얻는다. 성경에는 큰 불확실성을 직면하고도 위험을

2) 개인차원의 기업가정신도 미래지향적이지만, 사회적인 제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강조한다.

감수하는 여러 사례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이주하는 경우, 모세가 바로에게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투를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 등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지 만 믿음(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에 의지하여 모험을 감수한다(risk taking).

2.2 변화와 혁신

또한 성경의 기본 정신은 안주하는 것 (변화 거부)을 좋게 여기지 않고 있다. 성경의 큰 스토리의 하나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끊임없는 이동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창 11장)에 흠여짐을 면하고자 성(바벨탑을 쌓는다.³⁾ 그러나 하나님은 흠으신다. 안전한 곳에 안주하려는 것은 변화에 소극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실패할 위험이 따름)를 주저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변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에서 출발된다. 따라서 변화에는 창조의 결과이다. 창조와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한다. 성경의 기초적인 사조는 창조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속성을 받아 혁신적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번째 기적인 잔치집의 포도주 사건도 변화요 창조이다 (요 2장). 물이 포도주로 변화는 놀라운 변화(혁신적인 기술)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5병2어의 기적 등도 변화를 나타내는 혁신적인 사건이다. 사 43: 18~20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강과 사막이 바뀌는 혁신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혁신이란 기존의 관례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제3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혹은 새로운 방식(제조, 디자인 등) 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숨페터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성경에도 많은 혁신적인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낸 방법도 일종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애굽에 대항하여 게릴라전 같은 국지적인 전쟁⁴⁾을 일으킨 것도 아닌 대안을 찾은 것이다.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것이 혁신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사 55: 8~9 참조).

2.3 실패와 재도전 VS 회개, 용서

혁신적인 모험투자에 한번의 시도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고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이 나온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에 따른 혁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재도전하는 정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조성도 중요하다. 혁신이 잘 발달한 곳에는 실패에 대한 관용의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벤치마킹 하려했던 이스라엘의 창조경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벤처펀드인 요즈마 펀드는 상당수가 신규

3)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흠여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 외에도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있다.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것이 이름을 내기 위한 (교만함,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죄임) 징벌로써 흠으신 것으로 이해된다.

4) 오늘날도 민족분쟁이 있는 나라들에선 게릴라 전이 자주 일어난다.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 아프카니스탄 등에서 민족간 내전을 겪는 경우 게릴라전이 자주 발생한다.

사업가 보다 과거 실패경험이 있는 사업가에게 투자한다⁵⁾.

성경의 가장 숭고한 정신은 용서이다. 인간은 원죄를 짓고 태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은혜의 공훈 하심으로 대속(속량, redemption)을 받아 용서받은 죄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런 용서와 회개의 문화가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이다.

성경은 대개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하여 성공한 재도전의 스토리이다. 아브라함, 야곱, 삼손, 다윗, 베드로 및 제자들, 바울 등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재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 영웅들의 얘기이다. 하나님은 실패를 용서하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아버지)의 성품을 잘 나타낸 것이 탕자의 비유(눅 15장)를 들 수 있다. 고전 1:27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 중약” 실패자를 택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신다. 성경의 중요한 정신의 하나가 회개이다. 위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주신다는 공훈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독교의 회개정신이 잘 발달된 사회는 기업가들에게 재도전하여 성공할수 있는 기회를 높여준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혁신 창업가들이 재도전하여 성공한 것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독교(유대교) 문화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공한 창업가들이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여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 이스라엘의 실패용인 문화 (후즈파 정신: Chutzpah)와 요즈마 펀드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창업가들로 창조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것 이외에도 미래지향적인 공통점이 있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성경 속에 나타난 기업가정신 사례들

기업가정신의 특성 요인들	성경속에 나타난 기업정신의 특성 요소
모험, 도전 (risk taking)	아브라함 (창 12:1, 히 11:8) 두려워하지 말라(수 3:13, 15 등), 담대하라
변화, 혁신 (innovation) 숨페터: 혁신의 주역, 창조적 파괴	안주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혼인잔치 포도주 (요2장), 사 43: 18(광양의 길, 사막에 강)
기민성 (alterness) 커즈너	깨어있어라 (10처녀 비유, 마25장)
미래지향적	성경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 렘33:3, 전 11:1, 메시아 사상, 재림예수
불확실성	죄로 타락한 세상은 확실, 불완전 하나님은 신실 (신 7: 9, 시 119:86)
실패 용인, 패자부활	용서, 회개, 중생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고후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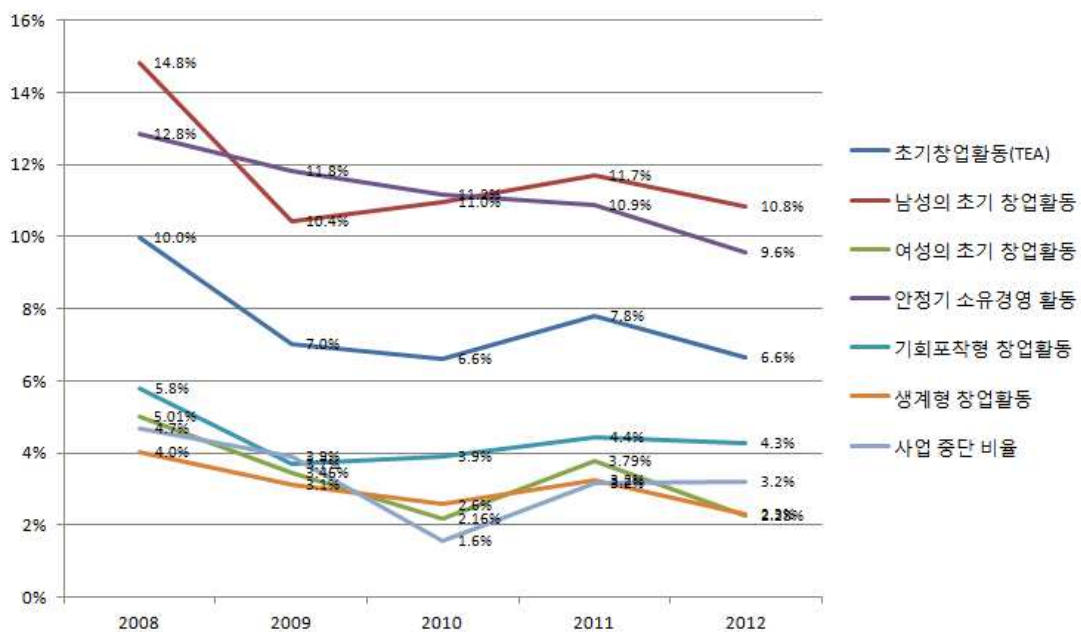
5) 요즈마(YOZMA)펀드는 1993년에 자본이나 담보능력 없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출발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 주도로 설립된 벤처캐피털이다. 투자 자금은 벤처캐피털과 정부가 60대40 매칭 방식으로 투자하고, 투자를 받은 기업은 경영에 실패해도 정부에 투자금을 갚을 필요는 없다.

3.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현황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선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지수가 GEM 지수이다. GEM 지수는 국가간 창업활동 태도, 활동 및 열망 차이를 국가별로 설문에 의존하는 정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설문에 의한다는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과 모집단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1]에서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창업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GEM 2012년 참여국 69개국을 요소주도형 경제 (factor-driven economy) 13국, 효율주도형 경제 (efficiency-driven economy) 30개국, 혁신주도형 경제 (innovation-driven economy) 24개국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은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해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4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TEA(18~64세의 태동기창업활동 + 초창기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초기창업지수)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림 1]에서 보듯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TEA가 4.9%로 가장 낮고 미국의 TEA가 13.8%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는 6.6%로 혁신주도형 경제 내에서 10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⁷⁾.

[그림 1] 우리나라의 창업지수 (GEM_2012)



자료: GEM Korea, 2012.

- 6) Kiet (2010)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듯하다. (고)정주영, (고)이병철같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된 걸출한 사업가가 만나와서 새로운 동력산업을 찾지 못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 7) TEA: 초기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GEM의 국제간 비교에 자주 쓰이는 지표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EM Korea, 2012 Report (Korean). PP 50~51을 참조 할것.

GEM과 유사한 다른 지표가 GEDI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라는 것이 있다. Zoltan Acs와Laszlo Szerb(2009)는창업과 경제성장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GEM측정값들과 다른 관련지표들을 결합해 GEINDEX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만들었다. 이 GEDI의 지표는 창업율과 경제성과 (GDP)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준다. 기업가정신 상위 20개국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득수준과 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GDP)는 구매력평가로 환산한 소득이다.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나라들이다. 상위 20위 안에서 국가들 중에서 비유럽권이며 비기독교 국가는 싱가포르, 한국뿐이다. 한국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개별 나라들의 기업가정신지수와 소득은 정확히 1:1 매칭은 안되지만, 순위별로 상위 10개 나라씩 평균치를 비교하면 GEDI와 국민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상위10위까지 그룹의 GEDI평균은 0.61이고 평균소득은 38,599 달러이다. 반면에 11위에서 20위까지의 GEDI는 0.54이며 평균소득은 31,530달러이다. 기업가정신과 소득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는 기독교 문화권의 유럽국가들에서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소득수준도 높게 나타난 현상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어설프다. 기독교문화가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형성하는 어떤 기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에 가설을 제기하였던 베버의 가설을 재해석하는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⁸⁾.

<표 2> 기업가정신지수 (GEDI) 지수순위와 국민소득

GEDI순위	국가	GDP	GEDI지수	GEDI순위	국가	GDP	GEDI지수
1	덴마크	35890	0.763	11	호주	34073	0.598
2	캐나다	34926	0.737	12	벨지움	34584	0.576
3	미국	44474	0.717	13	핀란드	33869	0.564
4	스웨덴	36358	0.685	14	영국	34726	0.561
5	뉴질랜드	26773	0.679	15	싱가포르	39508	0.558
6	아일랜드	44402	0.631	16	독일	34512	0.544
7	스위스	40183	0.630	17	푸에토리코	20222	0.541
8	노르웨이	49014	0.623	18	프랑스	33412	0.498
9	아일랜드	35490	0.617	19	슬로베니아	24913	0.489
10	네델란드	38093	0.616	20	한국	25481	0.488

자료: Acs and Szerb (2010), P. 36, Tabl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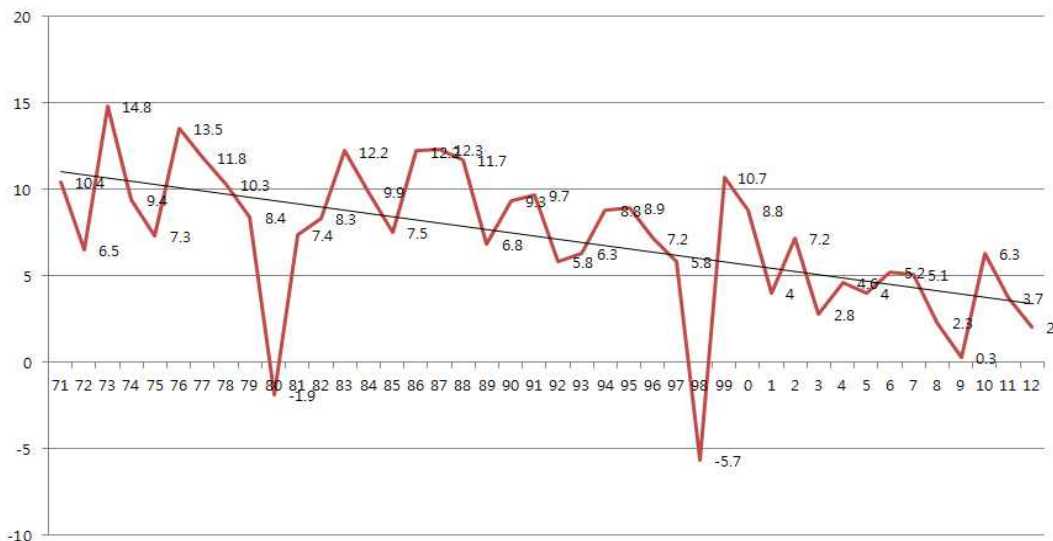
8) 이부분에 관한 검증은 하려면 보다 정교한 논리전개와 실증데이터가 필요하다. 본고에선 베버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기독교 문화권의 국가들에서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나고, 그로인해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베버의 가설을 완용하는 정도이다.

III.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창조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 성장 기여도 분석

그 동안 우리나라는 따라잡기 (catch-up) 모델로 성공하였다.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외국의 기술 도입하여 대기업 주도의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⁹⁾. 그러나 이제는 인구의 고령화 및 혁신적인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잠재성장이 하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 추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생산성(TFP)도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참조). 신 기술에 기초한 혁신주도형 경제모형에선 생산성(TFP)에 의한 성장이 아닌 요소투입 의존형의 경제모형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GEM에선 우리나라를 혁신주도형 경제국으로 분류하여 기업가정신 지수를 선진국과 비교하고 있다.

전체 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투입요소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음을 시사하고 그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기여도가 낮아 실속없는 경제성장을 이뤘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구조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⁰⁾. 2011년 기준으로 주요한 특징으로 중간투입비율은 58.8% (2005), 63.1 % (2010), 64.6% (2011)으로 점차 증가하는 반

9) 규모의 보수는 1980년대 0.66에서 1990년대 이후 1.16으로 확대된 반면에 기술진보의 증가율은 4%에서 1%로 감소하여 총요소생산성(TFP)이 기술의 발전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장인성(2013)을 참조할 것.

10) 한국은행, “2011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분석,” 2013.

면에 같은 기간 동안 부가가치율은 41.2%, 36.9%, 35.4%로 각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율도 같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자는 15.8명이던 것이 12.3명 (2010), 11.6명 (2011)으로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성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요소투입 생산 방식은 이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들에 의하여 추격을 당하므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증가에 기초한 창조경제 혹은 선도형경제 (fast mover)가 되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적 요인 (TFP의 증가로 나타남)을 증대시키는 전략이어야 한다.

〈표 3〉 우리나라의 생산성 추이 및 요소별 기여도 (%)

산업별	요소별	'71~'80	'81~'90	'91~'00	'01~'10
전체 산업	Y	8.5 (100)	9.3 (100)	6.0 (100)	3.8 (100)
	L	2.4 (28)	2.2 (24)	1.3 (22)	1.4 (37)
	K	5.3 (62)	6.7 (72)	4.2 (70)	2.3 (61)
	TFP	0.9 (10)	0.4 (4)	0.5 (8)	0.1 (2)
제조업	Y	14.8 (100)	11.8 (100)	8.3 (100)	6.1 (100)
	L	0.9 (6)	0.6 (5)	0 (0)	0.1 (2)
	K	1.2 (8)	1.6 (14)	1.1 (13)	0.6 (10)
	M	10.7 (72)	9.1 (77)	6.1 (73)	4.8 (78)
	TFP	2.0 (14)	0.5 (4)	1.1 (13)	0.6 (10)

() 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2013

2.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관계

내생적 성장이론 이후에 기술의 내생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의 내생성을 설명하는 시도의 하나로 슁페터적인 혁신, 기술, 생산성의 내생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 Aghion and Howitt(1992, 1998)은 슁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혁신으로 보아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Audretch and Thurik(1997), Audretch and Keilbach (2004) 등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Braunerhjelm et al (2010), Williams and McGuire (2010), Acs et al (2011)등은 기업가활동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윤재 (2008)도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도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혁신적 창업활동)과 경제성장 간에 관계를 장기간 시계열을 구축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혁신의 요체로 보아 기업가정신과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아래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Y = A(E, X)F(K, L) \quad (1)$$

A: 기술혁신, E: entrepreneurship, X: R&D, 기타 제도 및 인프라를 반영하는 통제변수 (지적재산권 확립정도, 공정경쟁 시장 등), K, L은 각각 자본, 노동을 나타냄.

총생산함수가 기술혁신(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혁신은 기업가정신에 의존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을 포함하였다¹¹⁾ (이운재, 2008 참조). 혁신적인 신기술 "A"는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따른다. 아직 시장수요도 미성숙으로 판로도 불확실하여 투자도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여러 종류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상업화할 사업가(entrepreneur)가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에 투철한 entrepreneurial investor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본고는 기업가정신에 종교적인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종교적인 믿음이나 신앙이 그 사회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베버의 가설에 기초하여 기독교의 성경에 기초한 독특한 문화가 기업가정신(자본주의 정신의 하나)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 기업가정신 (E)를 아래 식(2)와 같이 정의한다.

$$E = g(B, Z) \quad (2)$$

B:biblical belief (성경적인 믿음, 신앙)

Z: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통제변수 요인들¹²⁾

식 (1) 및 (2)의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 모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Y = A(E(B, Z), X)F(K, L) \quad (3)$$

식 (3)으로부터 성경적인 믿음이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생산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타 통제 요인(Z)들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frac{\partial Y}{\partial B} = \frac{\partial A}{\partial E} \frac{\partial E}{\partial B} \quad (4)$$

11) 기업가활동이 생산성 및 경제 성장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운재 (2008), GEM 각 연도 보고서 참조.

12)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개인적인 특성(성별, 학력, 창업경험 등),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통제능력 등), 조직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종교적 영향은 B로 반영되므로 종교적 특성 이외의 외생적 변수를 가정한다.

식 (4)의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그림 3]은 성경적인 믿음에 따라 사는 사회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주신다는 믿음에 따라 모험감수 하는 도전의 기회가 많아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에도 도전하여 창업활동이 활발해진다. 즉,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기업가정신이 높아지고, 실패에 대한 용인이 허용되어 혁신적인 기술에 도전하는 사업가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되고 사업화에 연결하는 창업의 기회도 증가하여 창조경제가 확산될 것이다. 종교(본고에선 기독교)라는 문화적인 요인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다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이다. 김진홍 목사는 기업가정신이 기독교 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업가정신의 요체를 (i)개척정신, (ii)창조정신, (iii)공동체정신으로 보고,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i) 영이신 하나님, (ii) 사랑이신 하나님, (iii) 창조하시는 하나님, (iv) 공동체 존재방식의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김진홍 목사의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이루면서 살면 기업가정신에 투철한 탁월한 사업가가 많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기업가정신은 본질적으로 상호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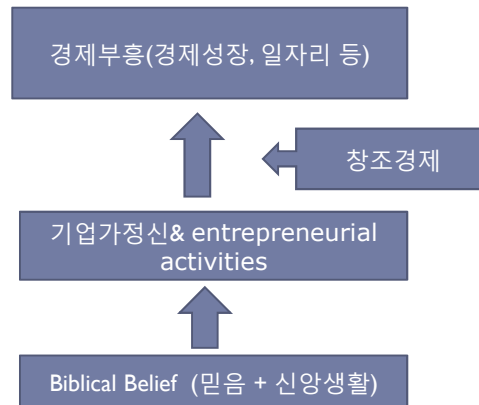
또한 Williams and McGuire (2010)도 문화적인 여건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63개국을 대상으로 문화(위험회피 정도, 기회, 보상)등의 여건이 기업가정신 형성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국민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2단계의 채널을 제시하였다. 즉, 사회의 문화적 요인 --> 경제창의력 (economic creativity) --> 혁신실행(innovation implementation) --> 국민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경제창의력 & 혁신실행을 혁신(innovation)으로 하고 이것을 기업가적 추진력 (entrepreneurial drivers)로 간주하였다. Audretsch et al (2007)은 인도의 경우를 대상으로 종교와 기업가정신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슬람 및 기독교는 기업가정신과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에 힌두교는 기업가정신을 제고시키는 데 역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¹⁴⁾. 기독교가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버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3) 김진홍, “기업가정신과 하나님의 형상,” 김진홍의 아침묵상, 크리스천투데이, 2012.5.20 참조.

14) 약 9만명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약 79%가 힌두교, 11.2% 무슬림, 5.6% 기독교, 1% 불교로 구성되었다. 인도경제가 장기간 정체된 것과 기업가정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힌두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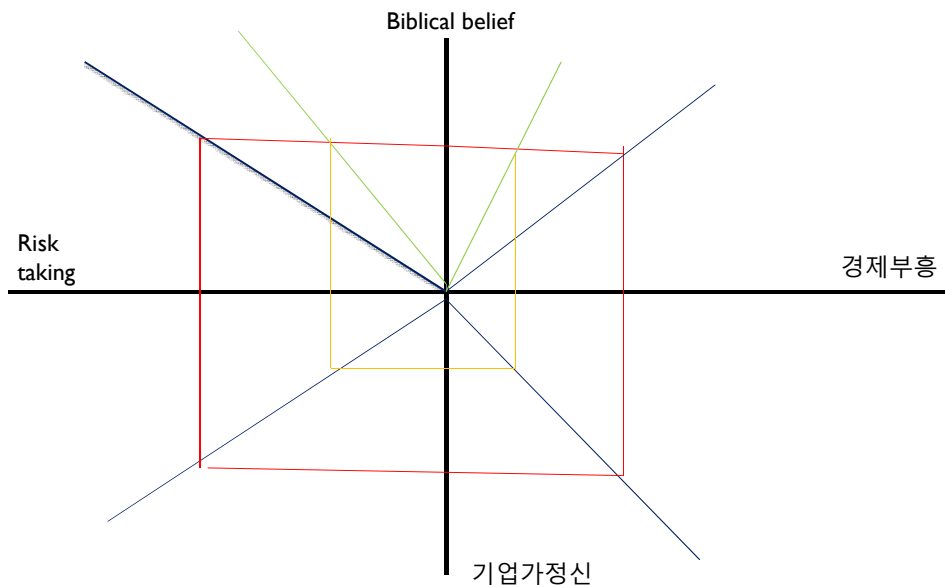
[그림 3] 성경에 기초한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온전한 성경적 (신앙생활) ▪ 성경적 가치관(risk taking, 달란트) ▪
기업가정신 활발 ▪ 혁신적 벤처기업 ▪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10

[그림 4] 성경적 기업가정신과 경제부흥 관계



11

[그림 4]는 성경적인 믿음과 위험감수, 그리고 기업가정신의 상호관계를 순차적으로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상호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어떤 국가(사회)가 기독교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유산)을 갖고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

하게 혁신적인 기술개발 사업에 도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 사회의 기업가정신이 높을 것이고, 그로 인해 모험적인 투자가 늘어 벤처창업이 증대하고 경제성장이 증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여기서의 분석은 다른 통제변수 요인들(자본, 노동, 기술, 정부의 정책 등)은 모두 일정하고 오로지 기독교 종교적인 요인(그로부터 파생되는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임을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식(3)을 전미분 하여 정리하면 기업가정신 및 성경적 특성(믿음)이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경제적 성과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기여도 효과를 각 요인별로 분해할 수 있다¹⁶⁾.

$$dY = [A_E dE + A_{EB} dB + A_X dX] F + [F_K dK + F_L dL] A \quad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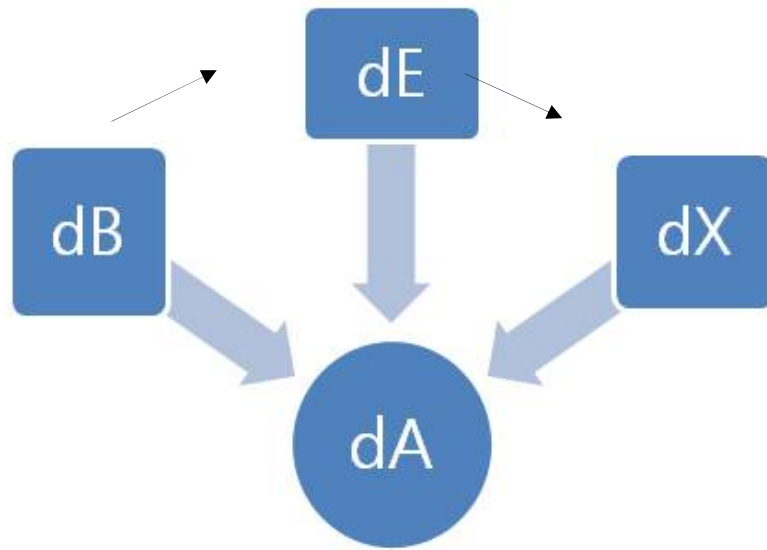
식 (5)의 전반부 [...] 에 속한 부분은 혁신적인 기술 및 생산성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후반부 [...]는 투입요소 (노동, 자본)이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앞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혁신 등 총체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TFP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 이후 전체 산업의 경우 자본, 노동의 요소투입에 의한 기여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TFP의 기여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지식, 혁신적 아이디어 등에 기초한 지식기반 창조경제 하에선 TFP를 반영하는 dA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식(5)의 [...]의 전반부는 총요소생산성을 반영하는 구성요소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dA = A_E dE + A_{EB} dB + A_X dX$ 으로 구성된다. dA 는 기술효과를 반영하는 R&D 등 연구개발투자를 나타내는 dX , 기업가정신의 변화(기독교적인 요소 외 다른 일반적인 요인을 통해서)를 반영하는 dE , 기독교적인 요소(성경적 믿음, 모험감수, 실패용인 문화 등)가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간접효과로 구성되고 이들 간에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기술요소인 dA 를 증대시킨다. 즉, 기독교적인 가치관(믿음)이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이것은 다시 혁신적인 R&D 모험투자를 감행하고 혁신적인 기술향상을 통하여 결국은 생산성 증가를 증가시킨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dA 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성경적 믿음, 기업가정신, R&D 등 상호작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관계

15) 경제성장이나 소득증대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기술, 숙련된 노동력, 자본, 시장의 크기, 정부정책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기업가정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여 경제적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베버의 가설에서도 청교도 정신이 왕성함에도 경제성장은 저조할 수도 있다. 배로(Barro, 2003)는 종교와 경제성장 간의 분석에서 프로테스탄트의 비율과 경제성장을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 베버의 가설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외에 이슬람의 비율, 그리스정교, 힌두교, 불교 등 대부분의 종교에서 경제성장과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로의 연구에 따르면, 지옥이 있다고 믿는 비율과 경제성장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종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16)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성경적 믿음(B) 외 기타 요소(Z)는 일정하다고 간주함. 따라서 믿음(B) 외의 기타 통제변수에 의한 영향은 외생적으로 dE 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함. 이는 본고에선 종교적인 믿음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형을 간단히 하고자 함임.



혁신적인 RD투자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 민간부문에서 쉽게 투자하기 어렵다. 혁신적인 기술 R&D투자 일수록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 실패 시에도 “낙인효과”가 없으며, 재도전이 쉽게 허용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및 지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문화적, 종교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지배됨)가 더 중요하다. 기독교적 가치 (모험감수, 미래지향적 가치관, 실패에 대한 너그러움)가 보편화 된 사회에선 실패할 확률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전 한다¹⁷⁾.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용인되는 곳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엔젤투자가 일어나고 그 중에 한 두개만 성공해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보상이 크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도전정신, 실패자에 대한 용인태도, 위험감수 등의 사회적 가치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양성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 시키고, 높은 경제적 성과가 가능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경제적 부흥인데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하다. 일찍이 베버가 청교도정신이 자본주의를 발흥시킨 것이란 주장을 한 것도 성경적 가치가 경제를 부흥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베버는 청교도의 (신교)의 가치가 어떤 메카니즘을 통하여 경

17)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혁신기술개발 R&D에는 소극적이고 모험을 회피한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실패 시 실패자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혁신적인 R&D개발투자가 위축된다. 정부의 연구비에는 발주기관의 너무 엄격한 예산집행과 감사로 인해 첨단기초 기술 개발에 도전하지 않는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로 창업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모험적인 기술개발에 주저하게 된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실패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먼저 실패한 경험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적 부흥을 초래했는가에 대한 경제적인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가 눈여겨 본 것은 청교도들은 구교들에 비하여 직업선택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는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숙련을 전문성 향상에 관심을 두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상업에 종사하여 가톨릭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기업가정신을 보여주었다. 구교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군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베버와 동시대에 살았던 쾰바르트도 이미 1902년 『근대 자본주의, Modern Capitalism』에서 종교 특히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적 발전 사이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쾰바르트는 『유대인과 경제생활, Die Juden und das Wirtschaftsleben』에서 15세기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된 세파디 유대인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추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쾰바르트는 유대인들의 자본주의 형성에서 역할이 컸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였으며, 이주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⁸⁾.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 (특히 모세5경)에 기업가정신의 주요한 특성들-불확실성 하에 위험감수하는 도전정신, 실패자에 대한 재기-이 잘 나타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경제성장은 혁신활동(기업가정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기업가정신을 제고시키는 것이 지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시대엔 더욱 중요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쇠퇴와 무관치 않다.

기업가정신은 개인적인 특성, 심리상태, 사회의 문화적 및 종교적인 가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적인 투자나 모험을 감수하는 벤처투자 등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 등에 달려 있다. 또한 혁신적인 R&D기술투자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패자에 대한 배려와 실패를 용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 이런 요소들은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로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본고에서는 성경적인 기업가정신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경제성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경제성장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베버의 가설-서구 기독교(청교도)의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보았다. 기독교의 고유한 특질들(불확실성 하에 모험 감수), 미래지향적인 사고, 실패에 대한 용서(회개 정신)이 혁신적인 활동 및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을 내생적성장이론 이용하여 제시해보았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일부의 선행 연구에선 유사한 실증결과를 보여주었다. 인도의 경우를 대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와 유사성이 있음)은 기업가정신을 제고시키고 힌두교는 기업가정신 함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경제적인 관계는 좀더 세밀한 규명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은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 질수 있다.

카우프만 기업가적 리더십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애리조나대 경영대학의 버저 기업가정신 프로그램(Berger Entrepreneurship Program)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주요한 발견은 (i)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

18) 스티븐 터너, 『베버』 제8장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를 참조할 것.

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25% 정도 더 많이 새로운 벤처를 형성하였으며, 11% 정도 더 많이 자기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 이상의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봉도 27% 정도 더 높았다. 그 외에도 매출성장도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 이수자들이 보다 신제품 개발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약 20~25% 달한다고 한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한국의 기독교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성인에 이르기 까지 성격의 기본 덕목을 잘 가르치고 그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성경적인 인적자본축적으로 건전한 성경적 경제관이 형성되고, 기업가정신도 함양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소명의식, 진로, 달란트에 따른 교육, 모험감수 정신, 인내하는 신앙, 진정한 회개운동,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실천 등을 통하여 “성경적 인적자본¹⁹⁾”(biblical human capital)이 잘 형성된다면 기업가정신도 살아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 회복도 한층 더 가능해 질 것이다.

19)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함이 성경적이다. 시37: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했는데, 모두 의대, 법대에 가려고 한다. 취업도 안전위주인 공무원, 공기업 등을 선호한다. 지방근무도 기피한다. 칼뱅이 주장했던 직업소명 의식이 없으며, 기독교의 고유 가치인 모험정신, 도전정신 등이 메말라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참고문헌

- Acs, Z., D. B. Audretsch, P. Braunerhjelm, B. Carlsson, "Growth and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February 2011.
- Acs, Z. and L. Szerb,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 (GEDI)," mimeo, 2010.
- Audretsch, D. and M. Keilbach,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Growth: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Vol. 14, 2004, 605-616.
- Auretsch, D. B. and A. R. Thurik, "Unravelling the Shift to Entrepreneurial Economy",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TI2010-080/3.
- Audretsch, D. W. Boente, and J. P. Tamvada, "Religion and Entrepreneurship," *Jena Economic Research Papers*, June 2007.
- Barro, R., and R. M. McCleary, "Religion and Economic Growth," mimeo, Harvard University, 2003.
- Braunerhjelm, P. Z. Acs, D. B. Audretsch, and B. Carlsson, "The Missing Link: Knowledge diffusion and entrepreneurship in Endogenous Growth," *Small Business Economy*, 2010. vol. 34, 105-125.
- Dana, Leo-Paul, *Entrepreneurship and Religion*, Edgar Elgar, 2010.
- Williams, L. and S. J. McGuire, "Economic Activity and Innovation Implementation: The Entrepreneurial Drivers of Growth?", *Small Business Economy*, May 2010. 391-412.
- 스티븐 터너, 『베버』 웅진환(역), 씨아이알, 2013.
- 이스라엘 M. 커즈너, 『경쟁과 기업가정신』, 이성순 (역), 자유기업센터, 1995.
- 이운재, 강달원, "기업가활동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2008.
- 장인성, 『중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
- kiet,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e-kiet산업경제정보, 제515호, 2011.9.28.
- 한국은행,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 *Quarterly National Account Review*, 2nd 2013.